

# “수행으로 삶의 변화, 그리고 행복 찾다”

### 조계종부산연합, 5월 19일 재가안거 하안거 입재

부산 재가불자 2000여 명 동참  
2014년 후 참여사찰 18개로 증가  
원오사, 주지 스님 지도 '효과 UP'  
어린이·청소년 수행도 활발



조계종부산연합회가 재가안거 입재식을 5월 19일 흥법사에서 봉행했다. 재가안거에 참가한 불자 1600명은 하안거 5월 21일~8월 17일, 총 90일 동안 안거 수행에 집중한다.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는 5월 19일 흥법사 대광명전에서 재가안거 입재식을 봉행했다. 재가안거에 참가한 불자 2,000여 명은 하안거 5월 21일~8월 17일, 총 90일 동안 일제히 수행에 들어간다.

지난 2014년 동안거를 시작으로 '재가안거'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는 불자들은 "바른 수행과 힘이 되는 도반, 그리고 스님들의 꼼꼼한 지도가 매우 긍정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까지 18개 사찰이 재가안거에 동참하고 있으며, 인원도 최대 2,000여 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특히 부산 포교사단, 동명대학 세계선센터 등에서 어린이 및 청소년들의 참여도 활발해 모범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재가안거 수행에 1회부터 빠짐없이 동참 중인 원오사(주지 정관)는 올해도 어김없이 50여명의 재가자들이 참여한다. 원오사 신도들은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관음예찬 기도를 올리며, 서로의 수행을 격려하고 있다.

또한 주지 정관 스님은 안거기간동안 참가자들의 수행을 일일이 점검해주며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가자들에게 질의를 받고 직접 답변해주는 것은 물론, 틈틈이 상담을 통해 올바른 수행에 대해 지도하고 있다. 아울러 재가자들이 가정에서도 근기에 맞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원문 쓰기, 참선 등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이밖에도 원오사는 이번 하안거 기간 동안 청소년들을 위한 '마음공부'도 실시해 눈길을 끈다. 원오사가 후원하는 '꿈나무 공부방' 학생들을 대상으로 매주 수요일 진행한다.

한명선(53) 씨는 "관음기도정진을 하면 분별심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들을 부처님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 내가 궁극의 행복을 느끼니, 주변인들에게도 권유하고 있다"면서 "절에 못가는 경우에도 스님께 문자를 보내 수행점검을 받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 더욱 좋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관 스님은 "안거 한철을 보낼 때 마다 성장하는 불자들이 보인다. 수행의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고 자신을 바꾸어가는 모습이 더할 것 없이 기쁘다"며 "나아가 봉사를 통한 나눔행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행을 권유하는 불자들이 더욱 많아져 흐뭇하다"고 전했다.

사찰 뿐 아니라 재가 단체들의 수행

동참도 줄을 잇고 있다.

작년 동안거에 이어 이번 하안거에도 참여하는 부산 포교사단(단장 이승표)이 대표적이다. 부산포교사단은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 조계종부산연합회 사무총장 목종 스님 지도하에 참선 수행을 한다. 또한 <수행록>을 통한 수행 점검도 가진다.

이승표 단장은 "안거에 동참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기쁘다"며 "포교사단에는 직장인들이 많아 사찰의 정기 수행에 참여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안거기간 동안 수행을 통해 큰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부산연합회에서 진행되는 재가안거에는 어린이들의 동참도 활발하다. 지난해 동안거 수행에서도 사불·사경 등에 참여한 흥법사 동림 어린이회는 이번 하안거에서 '마음거울 108배'를 실시한다. '마음거울 108배'는 조계종 포교원에서 제작한 108배 워크북으로, 어린이들은 이에 따라 수행하며, 선지식 친견 및 망생 범회 등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입재식은 5월 29일 오후 1시 흥법사 대광명전에서 진행된다.

조계종부산연합회는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것은 재가자들의 수행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며, 가족 및 어린이 포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며 "앞으로 활발한 수행 문화를 이끌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하성미 기자**

## 제26회 허공마지 흥법바라밀제 개최

6월 6일 경내 잔디마당서... '호국 숭결대회'도 함께



흥법사는 6월 6일 오전 10시 경내 잔디마당에서 현충일 맞이 '허공마지 흥법바라밀제'를 개최한다. 사진은 지난 해 천도제 및 행사 진행 장면.

흥법사(주지 심산)는 6월 6일 오전 10시 경내 잔디마당에서 현충일 기념 '제26회 허공마지 흥법바라밀제'를 개최한다. 바라밀제는 호국 영령 천도제를 시작으로 육법공양, 호국영령을 위한 묵념, 경과보고, 흥법대상 시상, 범문 등으로 진행된다.

흥법사는 "허공마지(虛空摩訶)의 '허공'은 일체 모든 가르침(法)이 존재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마지'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뜻한다. 따라서 허공마지는 유주 무주 모든 존재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라며 "호국 영령

및 순국선열의 넋을 기리며 유주무주 고혼의 넋을 위로하는 바라밀제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흥법사는 이날 오후 12시 '제6회 호국의 숭결대회'도 개최한다. 흥법사는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국가 인식과 나라사랑을 알리기 위해 매년 '호국의 숭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참가분야는 △글짓기 △그리기 △서하는 공간을 의미하며, '마지'는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을 뜻한다. 따라서 허공마지는 유주 무주 모든 존재에게 공양을 올린다는 의미"라며 "호국 영령

하성미 기자

## “듣지 못해도 불제자 되길 서원합니다”

부산 여래사, 5월 14일 농아인 수계법회 봉행



부산 여래사는 5월 14일 봉축을 맞아 '농아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농아인 불자들이 부처님의 계를 받아 제자가 될 것을 서원했다.

부산 여래사(주지 도원)는 5월 14일 봉축을 맞아 '농아인과 일반인이 함께하는 수계법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에서 모인 농아인 불자 40여명과 일반인 60여명이 참석했다.

1부 봉축 범요식에서 불자들은 관욕 식으로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고, 2부 수계법회에서 연비를 받으며 범명을 수지

했다. 주지 도원 스님의 범문 통역은 조경미 불자 수와 통역인(부산농아인협회 수역지부)이 맡았다.

도원 스님은 '화엄경심신' 중 '심신'에 대해 "이 세상 모든 인연에 대하여 믿음이 없으면 안된다"며 "믿음을 바탕으로 육바라밀을 실천해 부처님 법을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제4회 영축문화대상' 후보자 모집

(재)영축문화재단(이사장 현문)이 '제4회 영축문화대상 수상 후보자'를 모집한다.

시상 부문은 봉사(실천)상, 학술(문화)상, 포교(원력)상 각 1명이다. 각 시상에는 시상금 500만원과 상패가 주어진다. 각 후보 기준은 해당분야 수공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동종의 공적으로 정부 관련 포상을 받은 경우는 5년 이상 경과돼야 신청 가능하다. 국적·연령·성별·직업·학력·종교에 구분이 없으며, 승려인 경우는 조계종 소속이어야 한다. 추천권자는 소속 기관 대표자와 조계종 제작사찰 주지 또는 기관장이 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10월 31일 까지. 최종 수상자 발표는 12월 1일 통도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며, 시상식은 12월 9일 월하 스님 추모다례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052)246-8061

하성미 기자

## 춤과 노래로 펼쳐진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 제2회 꽃보다 10대, 청소년 울산 팝 댄스 경연대회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원장 능행)은 '제2회 꽃보다 10대,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 본선 경연 대회를 5월 14일 대학원 내 야외무대에서 개최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마하보디명상심리대학원(원장 능행)은 5월 14일 대학원 내 야외무대에서 '제2회 꽃보다 10대, 청소년 울산 팝, 댄스 콘테스트' (이하 꽃보다 10대 댄스콘테스트) 본선대회를 개최했다.

'꽃보다 10대 댄스 콘테스트'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마다 지역사회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해 여는 사회공헌사업이다. 과열된 경쟁사회 속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화합을 일깨우며, 공동체 정신 및 협동심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청소년 동아리 활동금을 지원하며 건전한 취미 문화 조성에 일조하고 있다.

올해 대회에는 밴드 2팀, 댄스 8팀 등 10팀이 경연을 벌여 △최우수상(상금 200만원) 울산여자상업고 'M.Y.B' △

우수상(상금 100만원) 무거중 'RG' △ 장려상(상금 50만원) 약사고 'Liberty' △ 비전상(상금 30만원)현대청운고 외 6팀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아울러 최우수상을 수상한 울산여자상업고의 박기숙 지도교사에게 울산광역시교육감상이 수여됐다. 원장 능행 스님은 "그동안 갖고 있던

기량을 이긋서 맘껏 펼칠길 바라며 꿈을 이루는데 좋은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며 격려했다.

또한 김복만 울산시 교육감은 "자신의 끼를 발산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금강저 108염주

천수경·반야심경·관음정근·지장정근을 할 때 이제부터는 108백팔금강저염주를 돌리십시오!

**일심으로 한알한알 돌릴 때마다 시방법계 부처님 법구의 무량한 힘으로 수행과 참회를 빛내 청정심이 되고, 전생부터 이생까지 알게 모르게 지은 업장소멸이 속히되어 망상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불법인연에 따라 해탈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 사찰에서 고통이 심한 신도님에게 천도제가 어려울 때, 발원기동용으로 사용하시면 소원성취가 속히 이루어짐으로 스님들께서 방도방편용으로 많이 사용하시며, 사찰불사용으로 적절합니다. **스님들께는 20% 할인해 드립니다.**

■ 백팔금강저염주를 소지하실 때 부처님 법단에 7일에서 21일간 올려놓으신 후 사용하시면 효험이 더욱 큼니다.

**부처님의 제 1 범구인 금강저를 정심모아 108염주로 만들었습니다!**

본래 금강저 1개만 소지하여도 모든 만사의 화근을 물리치고, 악귀잡귀를 퇴치하여 삼재화, 삼재액을 퇴방한다 하였는데, 금반 금강저는 세계 최초로 금니 금강저108개를 모아 일개의 염주로 제작하여 상서로운 불법력을 강화시킨 장엄범구로서 큰 원력을 지닌 범구입니다. 사찰의 불법력과 스님의 신심원력을 한층 돋우게 하여 수행하는 불자라면 누구라도 소지하면 일게 모르게 지은 전생업장소멸이 되어 참된수행정진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 성황리 사찰불사를 기원할때
- 자손득남 발원할 때
- 환자가 속쾌차하기를 바랄때
- 시험에 합격을 기원할때
- 사찰신도가 신심이 흩어져 줄어들었을때
- 새 사업을 개업할때
- 금전 재산이 모이질 않고 점점 줄어들때
- 집터나 가게터가 산란하여 장사가 안되고 재수가 없을때
- 가정이 평안하고 부부가 화목하기를 바랄때
- 망상과 마구니로 인해 수행정진이 잘 안될때

**입금계좌 : 농협 302-4233-7099-41 / 전화 : 010-4233-7099**



전체길이 245cm / 제조원 백팔금강저  
가격 240,000원